

<조손별서>와 <답사친가>의 고증적 연구

고순희*

<차 례>

1. 머리말
2. ‘유실이’의 사망연대 고증 및 서술 단락
3. <조손별서>와 <답사친가>의 내용 고증
4. 맺음말

<국문초록>

<조손별서>와 <답사친가>는 텍스트 자체의 읽기가 매우 어려운데다가,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연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의 목적은 두 가사의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고증하는 데에 있다.

우선 <답사친가>의 작자 ‘유실이’의 사망연대를 고증했다. 기존에 ‘유실이’의 사망연대는 1937년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쓴 <읍혈록>에 의하면 유실이의 사망연대는 1927년이다. 그리고 3장의 논의를 돕기 위해 두 가사의 서술 단락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두 가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증했다. 두 가사의 작자는 조모와 손녀 사이로 작품 내에서 사연을 공유한다. 따라서 작품별로보다는 주제별로 고증하는 방법을 택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叔姪”은 ‘강실이’와 ‘유실이’를, “아자비”는 李衡國(1886~1931)을 말한다. 그리고 “너에祖父”와 “우리왕부”는 李相龍(1858~1932)을, “장중에 일기금동”과 “남천보옥 우리정하”는 柳正夏(1912년생)를, “우리왕모”는 金宇洛(1854~1933)을, “우리야야 남미분”은 李濬衡(1875~1942)과 강실이를, “나에남제”는 李炳華

* 부경대학교

(1906-1952)를 말한다. 이들 인물과 관련한 각 구절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고증했으며, 기타 망명과정과 연도에 관한 사항도 고증했다.

핵심어 : 조손별서, 답사친가, 만주망명, 김우락, 유실이, 이상룡, 유시준

1. 머리말

<조손별서>와 <답사친가>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가사이다. 이동영이 처음으로 두 가사의 작품 세계를 간단히 소개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손별서>가 이상룡의 부인인 김씨부인의, 그리고 <답사친가>가 이상룡의 장손녀인 이씨부인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언급되었다.¹⁾ 그런데 이 논의를 참고한 이후의 논의에서부터 두 가사의 기본적 사실에 혼동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거의 모든 논의에서 만주에서 창작된 <조손별서>를 만주로 떠날 때 창작된 것으로 파악했다²⁾. 이런 실정에서 작자나 창작 동기에 대한 오류도 간간히 빚어지곤 했다³⁾. 이렇게 두 가사의 기본적 사실에 대한

1) 이동영은 ‘일제 失國에 쫓기면서 광복을 도모하여 중국으로 망명 간 애국지사의 가족들이 내 고향, 내 조국을 버리고 이산하는 육친의 슬픔을 표출한 가사’의 예로 <조손별서>를 들고 그에 대한 손녀의 답가인 <답사친가>를 같이 논의했다. 이동영, 「개화기 가사의 일고찰」, 『가사문학논고』(중보판), 부산대학교출판부, 1987, 157~160쪽. 「개화기 가사의 일고찰」은 『가사문학논고』의 초판본(1977년 출간)부터 실렸다.

2) 조동일, 류연석, 권영철 등은 <조손별서>의 창작시기를 망명 당시로 파악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 108쪽. ;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412~413쪽. ;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100~101쪽.

3) 권영철은 內簡類를 다루는 자리에서 <조손별서>의 축약 형태인 <유실 보아라>를 다루었는데, 이 작품을 부친이 중국 땅에 가 있어 부친 없이 안동 유씨댁으로 신행을 가는 손녀에게 조모가 써준 계녀가계 가사로 보았다(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572쪽). 한편 <답사친가>는 신변탄식류가사의 하나로 다루었는데, “일제시대에 일제의 탄압으로 남편이 옥고를 겪고 만주땅으로 망명길에 오르

혼동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는 남아 전하는 필사본 텍스트가 난해하여 그 읽기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조손별서>의 경우 필사본 텍스트가 매우 난삽하고, 활자화된 것도 없어 텍스트를 읽은 연구자가 드물었던 점도 근본 이유로 작용했다.

최근 ‘만주망명가사’의 하나로 <조손별서>가, 그리고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의 하나로 <답사친가>가 다루어졌다. 이 논의들을 통해 작가의 구체적 생애가 재구성되었으며, 작품세계 및 미학적 특질도 다루어졌다⁴⁾. 그런데 두 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적 특질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개별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품 전체의 큰 구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두 가사 작품은 작자의 개인적 사정을 내용 가운데 많이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작자의 생애, 문중인의 족보, 문중인의 행적 등을 알지 못한 채 텍스트를 읽으면 텍스트의 구절이 누구에 대한 사연인지, 어떤 사연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필자는 두 가사의 작품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읽기와 고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다가 이전의 논문에서 <답사친가> 작자 ‘유실이’의 사망

는데 작자는 남편을 따라 떠나면서 부모와 고국산천을 하직하고 그 슬픔을 탄식한” 작품이라고 하여 작가, 창작시기, 작품의 내용 등에서 오류를 범했다(권영철, 『규방가사각론』, 앞 책, 49~50쪽). 그러나 『규방가사 I』에 이 작품을 실으면서는 “만주로 망명한 독립투사의 손녀 작이다”라고 다시 정정하여 언급했지만, 친정 부모의 편지를 받고 답한 가사라고 파악하여 역시 오류가 있었다(권영철,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원, 1979, 189쪽).

4) <조손별서> 작자 ‘김우락’의 생애는 「만주망명가사 <간운스> 연구」(고순희, 『고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107~134쪽)와 「일제 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 - 담당층 혁신유림을 중심으로」(고순희, 『고시가문학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37~68쪽)에서 다루었다.

<답사친가> 작자 ‘유실이’의 생애는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문학-자료 및 작가를 중심으로」(고순희, 『고시가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33~66쪽)에서 다루었다.

두 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적 특질은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 - 미학적 특질을 중심으로」(고순희, 『우리어문연구』 제44호, 우리어문학회, 2012, 125~152쪽)와 「만주망명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적 특질」(고순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83~207쪽)에서 다루었다.

연대를 잘못 추정한 점이 있어 고증을 통해 옳게 고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조손별서>의 작자는 1910년 경술국치 직후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石洲 李相龍(1858-1932)의 부인인 金宇洛(1854-1933)이다⁵⁾. <답사친가>의 작자는 김우락의 장손녀로, 하회마을 柳時俊(1895-1947)⁶⁾에게 시집을 간 固城李氏(1894-1927) ‘유실이’이다. 만주에 있는 조모가 서찰을 대신하여 써서 안동에 사는 손녀에게 보내자, 그것을 읽은 손녀가 그것에 답하여 쓴 것이 두 가사이다. 따라서 <조손별서>와 <답사친가>는 화답형 가사로서 그 창작 배경이 서로 같으며,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펼쳐진 사연을 서로 공유한다. 그리하여 두 가사에 대한 구체적 고증을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손별서>와 <답사친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증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우선 ‘유실이’의 사망연대를 고증한다. 그리고 3장의 논의를 위해 두 가사의 서술 단락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두 가사 작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증한다. 두 가사가 사연을 공유하기 때문에 작품별로 고증하기보다는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주제별로 고증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조손별서>의 이본은 4편⁷⁾이, <답사친가>의 이본은 5편⁸⁾이 확인된다.

5) 김우락은 만주망명가사의 또 다른 작품인 <간운사>의 작가이기도 하다.

6) 류시준은 독립운동가로 추서되지는 못했지만,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에 그의 독립운동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다. “1920년 2월 경 柳時彦·柳性佑 등과 함께 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 그는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 요원으로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던 유시언·유성우와 함께 1920년 2월 문경군 산북면 서중리의 張守學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로 보냈다. 이 사실이 일본경찰에게 발각되어 유성우는 옥사하였으며, 유시언은 1921년 11월 29일 대구 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 형을 언도 받았으나 탈출하여 만주로 떠났다.”(『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영남사, 2001, 195쪽).

7) 임기중편, 『역대가사문학전집』45권, 아세아문화사, 1989, 300~313면(<조손별서>라). ;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편, 『한국가사자료집성』2권, 태학사, 1997, 131~141면(<조손별서>). ; 한국가사문학관(<조손별서>); 한국가사문학관(<조

그간에 수집 발간한 자료를 선별하여 주해한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에는 <답사친가>만이 실려 있다⁹⁾. 이 연구에서는 『가사자료집성』 제2권에 실린 이본을 인용한다. 이 이본은 국한문 혼용으로 다른 이본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원전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⁰⁾. 『가사자료집성』에 실린 제목은 <조손별서가>와 <답사친가>이지만, 대표 제목인 <조손별서>와 <답사친가>를 쓰기로 한다.

2. ‘유실이’의 사망연대 고증 및 서술 단락

이전의 논문¹¹⁾에서 ‘유실이’의 생몰연도는 1894년에서 1937년으로 추정되었다. 추정은 ‘유실이’에 대한 족보기록과 자식들의 출생연도에 근거한 것이었다. ‘유실이’에 대한 족보기록은 “字耕山一八九五乙未生丁亥十二月二十九日卒 配鐵城李氏父濬衡臨清閣后甲子生丁卯三月二十二日卒四子 墓玉溜洞入口合窆”¹²⁾이다. 여기에는 작가의 탄생 연도가 “甲子(1864년)”로

손별서>). ; 그 외 권영철이 『규방가사각론』(앞의 책, 569-571면)의 5장 ‘내간류’에서 다룬에서 축약본이 있는데, 여기에 실린 제목은 <유실보아라>이다.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규방가사 I-가사문학대계③』, 1979, 189~195면(<답사친가>).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제23권, 여강출판사, 1992, 74~87면(<답사친가>). ;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편, 『한국가사자료집성』 제2권, 태학사, 1997, 142~154면(<답사친가>). ; 가사문학관(<답사친가>); 가사문학관(<답사친가>)

9)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제1-20권, 아세아문화사, 2005. 이것을 DB로 구축해 놓은 『한국역대가사문학전집』(KRPIA <http://www.krpia.co.kr> 소재)을 참고할 수 있다.

10) 『역대가사문학전집』에 실린 <조손별서라>와 <답사친가>는 영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45권에 실린 <조손별서라>의 영인 가운데 304면에 실린 부분은 307면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다른 이본과 대조해 볼 때 원래 304면에 실려야 할 것이 실리지 못한 것이다. 원래 이 부분은 손녀가 귀령부모하여 다시 만난 즐거움과 그 후의 이별을 읊은 것이 와야 한다. 23권에 실린 <답사친가>의 영인 가운데 76면 다음에 79면과 80면이 와야 한다. 올바르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4~76면 → 79~80면 → 77~78면 → 81~87면.

11) 주4) 참조.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다. <東邱李濬衡先生年譜>에는 1894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甲午(1894년)”가 맞다¹³⁾. 그리하여 사망 연도로 기재된 “丁卯(1927년)”도 “丁丑(1937년)”의 誤記로 보았는데, 1937년 넷째아들을 낳고 사망한 것으로 본 것이다¹⁴⁾. 그런데 다음의 기록을 보면 ‘유실이’의 사망 연대는 족보에 적힌 그대로 “丁卯(1927)년”이 맞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늘이 우리집에 재앙을 내려 신해[1911]년 王考께서 돌아가셨으니, 이때 오직 선생께서 기미를 밝혀 만주로 떠나신 해입니다. 3년이 번개처럼 지나고 망령되이 분수가 아닌 생각을 하여 중도에서 죽던지 살던지를 맡길 요량으로 먼저 西州의 적막한 물가에 도착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마침내 인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따라 가고 싶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진퇴가 의거할 데가 없다고 할 만합니다. 소자의 부족한 견해로 新潮流가 마구 휩쓰는 가운데서 잘못 미끄러져, 아내를 데리고 한성에 우거한 지 몇 년 만에 하늘이 재앙을 거두지 않음으로써, 아내가 해산후 곧 죽었으니, 소자의 덕이 박하고 복이 없는 것은 이미 논할 수 없다 하더라도 ---.¹⁵⁾

12) 『豊山柳氏世譜』卷之三, 234-235쪽.

13) <東邱李濬衡先生年譜>는 유실이의 부친인 이준형의 생애 연보이다. “1894년(십구세) ○부공 석주선생을 도와 병학을 연구하는 등 이때부터 부공의 제반사업 추진에 깊이 참여하다. ○장녀 출생”(이준형, <東邱李濬衡先生年譜>, 『東邱遺稿』, 석주이상룡기념사업회, 1996, 518~519쪽).

14) 족보를 근거로 작가의 사망연대를 추정한 이전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위의 기록에는 작가가 1864년에 태어나 1927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록의 생몰년 간지에 誤記가 있었던 듯하다. 작가 부친의 연표에 작가의 탄생은 1894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甲子(1864년)生’은 ‘甲午(1894년)生’의 오기가 분명하다. 그리고 ‘丁卯(1927년)--卒’도 ‘丁丑(1937년)--卒’의 誤記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작가가 ‘四子’를 두었다고 했는데, 넷째 아들의 출생연도가 1937년이고, 남편 류시준이 後配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데 작가는 1937년에 4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것인데, 40이 넘는 나이에 넷째 아이를 출산하여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문학-자료 및 작가를 중심으로」(고순희, 앞의 논문, 51쪽) 그리하여 작자의 생애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덧붙여졌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조부가 1932년 만주에서 사망하자 조모와 부친 등 친정 식구가 조부의 시신과 함께 고향 임청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친정집은 일경의 감시 속에서 감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1933년에는 작가를 애지중지하던 할머니마저 사망하고 말았다.”(앞의 논문, 50~51쪽)

위는 1932년 이상룡이 사망했을 때 ‘유실이’의 남편 유시준이 적은 <읍혈록>이다. 위에서는 장인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지 못한 내막과 아내의 죽음을 말했다. 장인이 만주로 망명할 당시 王考의 죽음으로 함께 가지 못했다, 3년 상을 치룬 후에 서주[신의주?]까지 가서 살기도 했지만 결국 망명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서울에 몇 년을 살게 되었는데, 해산을 한 아내가 그만 사망했다고 했다. 유시준의 네 아들은 1912, 1915, 1927, 그리고 1937년에 출생했다. 따라서 ‘유실이’의 사망연대는 이상룡이 사망한 1932년 전으로, 셋째아들을 낳은 1927년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들은 유시준의 후배 소생으로 보인다.

<조손별서>의 서술단락은 다음과 같다¹⁶⁾.

- ① 처음 ~ 102구 : 손녀의 성장, 결혼, 신행, 귀령부모
- ② 103구 ~ 151구 : 남편의 망명 결심과 손녀와의 이별
- ③ 152구 ~ 170구 : 1년 후 망명 권유 사연
- ④ 171구 ~ 222구 : 만주 가족의 손녀 생각
- ⑤ 223구 ~ 245구 : 경계의 말
- ⑥ 246구 ~ 273구 : 사위와 외손자에 대한 덕담
- ⑦ 274구 ~ 297구 : 아들의 귀향과 고향인에 대한 고마움
- ⑧ 298구 ~ 315구 : 결어

<조손별서>는 편지 글을 대신한 가사여서 그런지 그 서술이 언제나 손녀를 향한 발언으로 되어 있다. 작자는 ①에서 손녀의 성장, 결혼, 신행, 귀령부모 등을 차례로 읊었다. 귀령부모한 손녀를 보낼 때 심정이 섭섭했지만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는 것이다. ②에서는 이상룡이 망명을 결심하고 갑작스럽게 떠나오느라 손녀와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별한 사연을 읊었다. ③에서는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손녀에게도 망명을 권유했던 사연을 읊었다. ④에서는 만주에서 손녀를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15) 이상룡, 『국역 석주유고 상』,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318쪽.

16) 이 논문에서 두 가사 작품의 구수는 2음보를 1구로 하여 계산한다.

모습과 심정을 차례로 읊었다. 그리고 ⑤에서는 시댁 어른을 모셔야 할 손녀를 향해 경계의 말을 전하고 ⑥에서는 사위와 외손자에 대한 덕담을 이어 나갔다. ⑦에서는 아들이 안동으로 귀향했을 당시 있었던 사연과 그 고마움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⑧에서는 가사를 짓게 된 동기와 손녀 부부에 대한 기원을 적었다.

<답사친가>의 서술단락은 다음과 같다.

- ① 처음 ~ 30구 : 조모의 하찰에 대한 감회와 부모 생각
- ② 31구 ~ 51구 : 일제 강점의 나라 현실
- ③ 52구 ~ 102구 : 조부의 망명 결심과 부모 이별
- ④ 103구 ~ 125구 : 성장과 결혼 및 이별
- ⑤ 126구 ~ 181구 : 가을날의 부모 생각과 마음 다짐
- ⑥ 182구 ~ 235구 : 계절의 순환과 감회
- ⑦ 236구 ~ 263구 : 부친의 환국과 이별
- ⑧ 264구 ~ 311구 : 시아버지의 위로
- ⑨ 312구 ~ 349구 : 조모와 남동생 생각
- ⑩ 350구 ~ 363구 : 결어

작자는 ①에서 조모의 가사를 받은 감회를 서술하여, 이 가사가 조모의 가사에 대한 화답가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런데 작가는 곧이어 “父母 존당 자이이로所身이 生出시초”라 하여 부모의 양육지은을 생각하고 부모와 원별한 심정을 표현했다. 이렇게 <답사친가>는 <조손별서>에 대한 답가임에도 불구하고 조모를 향해 발언하는 서술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자의 의식은 부모에게 중점적으로 향해 있었다. 이어 ②에서 일제가 강점한 나라의 현실을 읊었다. ③에서는 조부의 망명에 의한 친정 식구, 특히 부모와의 이별을 읊었다. ④에서는 자신의 성장 및 결혼에 이어 부모와의 이별을 기술했다. 이어 ⑤에서는 가을날의 부모 생각을 서술하고, ⑥에서는 계절의 순환에 따른 숙모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읊었다. ⑦에서는 잠시 귀향했던 부친이 환국하자 그 이별의 아픔을 노래했다. 그리고 ⑨에 와서야 조모의 환갑날을 떠올리고, 남동생의 앞날을 기원했다.

마지막으로 ⑩에서 나라의 독립을 기원했다.

3. <조손별서>와 <답사친가>의 내용 고증

1) 叔姪

<조손별서>는 서두에서부터 “숙질”이 언급되며, 이후 두 가사에는 종종 ‘숙질’이 언급되곤 한다. ‘숙질’이 등장하는 구절을 인용하여 ‘숙질’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고증하는데, 인용 구절 중 고증이 필요한 부분을 아울러서 논의한다. ①, ②와 같은 숫자는 인용구가 속한 각 가사의 서술 단락 번호이다.

① 어엿분 이아히야 할미소회 드러셔라 / 네어미 은덕으로 금옥갓흔 너의 몸을 / 가) 갑오년에 탄생하니 작인이 기이할분 / 자손중에 처음이라 남여경중 있다해도 / 우리난 나) 너에숙질 차등업시 길너너니 / --- / 佳郎을 광구하니 교목세가 어딤련고 / ○上에 다) 柳氏門中 경향갑족 안이런가 / 어엿분라) 二八兩年 郎閨가 상적하니 / --- / 新行날 定日하여 힝장을 슈습하니 / --- / 마) 너의祖父 갖치가니 / 광경도 좃컨이와 위우도 더욱장타 / 入門한 三五朔에 홍은혜턱 밧잡다가 / 바) 三月何時 好時節에 귀령父母 반가와라 / --- / 사) 너히숙질 쌍을지어 우리슬하 다시오니 / 만실리 화기런니 사돈너 성덕으로 / 사랑을 못이기어 오란명영 내려시니 / 아) 庚戌년 冬十月에 너히 叔姪 보낼적에 / 연약한 이너심장 섭섭하여 하난모양 / 손잡으며 읊○○○ 손아손아 잘가그라 / 時春에 다시보자 철석갓치 언약한이 / --- / (<조손별서>)

위는 손녀의 성장, 결혼, 그리고 귀령부모를 차례로 서술한 것이다. 가)의 “갑오년”은 손녀가 태어난 1894년으로 매우 정확한 기술이다. 다)의 “유씨문중 경향갑족”은 손녀사위 류시준이 명문거족인 풍산류씨 문중인이

기 때문의 나온 표현이다. 라)의 “二八兩年”은 실제로는 유시준이 손녀보다 한 살이 적었기 때문에¹⁷⁾ 개략적 표현으로 봄이 좋을 듯하다. 마)에서 “너의祖父”는 이상룡으로 손녀의 신행날에 사돈댁까지 동행한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바)에서 아)까지는 손녀의 귀령부모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손녀는 신행 간 지 몇 달 만인 “庚戌年(1910년)” “三月”에 친정에 왔다가 그 해 10월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나), 사), 아) 등에 나오는 “너희叔姪”은 ‘너희들 숙질’로 작자의 딸과 손녀를 말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숙질이 되기 때문에 “너희叔姪”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작자의 딸은 누구일까. 작자의 소생은 1남 1녀인데, 그 딸은 독립운동가 姜南鎬(1894-1950)에게 출가한 ‘강실이’이다¹⁸⁾. 이상룡이 강남호에게 보낸 편지 <강덕재(남호)에게 보내다>에 의하면 이상룡은 나이 50에 사위를 보았다¹⁹⁾. 이로 볼 때 강실

17) “子時俊 字耕山一八九五乙未生丁亥十二月二十九日卒 配鐵城李氏父濬衡臨淸閣后甲子[甲午의 오기 : 필자 주]生丁卯三月二十二日卒四子 墓玉溜洞入口合窆”(『豊山柳氏世譜』卷之三, 234~235쪽).

18)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 아들은 곧 불초 준형이고, 딸은 출가하여 강남호의 아내가 되었으며, 천성과 행실이 단정하고 개결하였는데 불행하게 일찍 죽었다”(〈先府君遺事〉, 이상룡, 『국역 석주유고 하』,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613쪽).

姜南鎬(이명 : 강덕재, 강호석)의 공식 이름은 姜好錫(1894-1950)이다. “경북 상주 출신이며, 석주 이상룡의 사위이다. 그는 1919년 가을 중국 안도현 내도산에서 성준용 등과 독립군의 병영지를 물색하였다. 그 뒤 1924년 8월 반석현에서 개최된 한족노동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26년 10월에는 한족노동당 대표회의에서 검사위원으로 활약하였다.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123쪽) 강호석은 이상룡 선생 가문에서 독립운동유공자로 훈장을 받은 10번째 인물이 되었다.

19) “나이 50에 사위를 본 것만으로도 기쁘기가 마치 絶世에 드문 경사를 만난 것같은데, 하물며 사위의 훌륭함이 내가 자나 깨나 갈망하던 바로 그 사람이에라---”(이상룡, 『국역 석주유고 상』,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478~479쪽).

작자가 손부에게 “아이고 가엾어라. 우리도 강실이, 유실이 열여섯, 일곱 살 될 때 그렇게 먼 데 시집보내 떨쳐 두고 왔더니, 그 보복이 너한테로 돌아왔구나”(허은구술, 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우사, 1995, 101쪽)라고 한 말에서 강실이는 16살에 시집을 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통상 여자 나이 16살에 결혼을 하는 예로 미루어 보아 강실이는 1892년 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작자가 늦은 나이에 낳은 늦둥이로서 손녀와 거의 같은 연배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작자의 딸과 손녀가 동시에 성장했으므로, 나)에서 “너에숙질 차등업시 길너너니”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강실이는 1907년 경에 시집을 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실이보다 결혼은 먼저 했지만 귀령부모는 늦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는 두 사람이 동시에 귀령부모한 사실을 읊은 것이다. 이렇게 동시에 귀령부모한 “너히숙질”이 약 7개월을 머무르다 그해 10월에 다시 시댁으로 가게 된 사실을 아)에서 서술한 것이다. ‘숙질’은 <답사친가>에도 등장한다.

⑥ 잇씨가 어나쨌고 / 춘풍을 못이기여 가지가지 춤을추고 / 송이마다 나 부길적 가) 우리숙질 부모전에 / 응석하며 질기더니 추성이 은은하고 / 낙엽이 분찬할제 안심잔연 들디업다 / 천외을 창망하니 어안이 돈절하다 / 그리위라 부모조상 나) 보고져라 우리숙모 / 용봉명주 몇남미가 음용이 이히하다 하일 하시에 기러기 줄을이어 / 소식이나 아라볼고 천슈만한 이너회포 / 몽혼이나 가고져라 부모슬하 가고져라 / 자손지명 다가면서 나난엇지 못가난고 / --- / 인싱天地 万物中에 친하고 가즉하니 / 母女맞게 쏘잇난가 유한정정 우리자당 / 봉친지도 골물하여 多事無暇 ㅎ온中에 / 불초여랄 싱각ㅎ사 몇번이나 늦기신고 / 여중요순 우리왕모 삼초사덕 겸전하여 / 천품자의 슈명ㅎ사 철륵에 자별지회 / 다) 의강숙모 귀령마다 ○소손을 싱각ㅎ사 / 비회병철ㅎ사 몇번이나 늦기신고 / 그러그려 광음이 여류하여 / 다섯가을 되얏도다(<답사친가>)

<답사친가> 서술단락 ⑥은 계절의 순환에 따라 친정 식구를 보고 싶어 하는 작자의 감회를 읊은 것이다. 가)는 어릴 적 부모 앞에서 응석받이로 지내던 일을 회상한 것인데, 이때 강실이 숙모와 같이 자랐으므로 “우리숙질”이 등장한 것이다. 나)는 강숙모를 보고 싶어 하면서 조카들의 모습을 눈에 떠올리는 장면이다. “용봉명주 몇남미”는 강숙모가 낳은 자제를 말한다. 강숙모는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龍求’이다²⁰. “용

20) “강남호의 아들은 龍求이고, 딸은 孫景麟에게 출가하였다”(〈先府君遺事〉『국역 석주유고 하』, 앞의 책, 613쪽)

봉명주”에서 첫음절 ‘용’은 ‘용구’의 첫글자이다. 작자가 조카 둘에 대해 아들은 “용봉”으로 딸은 “명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이본의 기록이 “인봉명주 몇남미”, “인봉명주 네남매”, “인본명주 넷남매”, “인봉명국 옛남미” 등으로 되어 있어²¹⁾, ‘용’, ‘봉’, ‘명’, ‘주’ 등 ‘네 남매’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당시에는 자제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모를 일이다.

강남호와 그의 부친 姜信宗의 이름은 김대락의 망명일기 1911년 7월 1일자에 처음 등장한 이래 이후 1912년과 1913년에도 간간히 보인다²²⁾. 강남호가 만주로 망명하여 장인 이상룡을 보좌했으며, 강숙모도 시아버지,

21) “인봉명주 몇남미가 음용이 이희하다”(전집본) ; “인봉명주 네남매가 음용이 의회하다”(규방가사본) ; “인본명주 넷남매가 음용이 의회하다”(가사문학관본1) ; “인봉명국 옛남미가 음용이 의회하다”(가사문학관본2)

22) 『국역 백하일기』(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경인문화사, 2011)에서 남편 강남호와 그의 부친 강신종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 것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인용 면수이다.

『西征錄』[1911년 기록] - 7월 1일, “저녁에 상주에 살던 강신종·강호석과 조하기·이형국, 대구 사람 윤지환이 와서 잤다.” ; 7월 3일, “저녁에 황병일·강호석·이형국·윤지환이 와서 잤다.” ; 7월 4일, “강신종·강호석·이형국이 모두 영춘 원으로 떠났다.”(122~123) ; 12월 23일, “강남호가 와 보았다.”(186)

『壬子錄』[1912년 기록] - 1월 3일, “한낮 무렵에 강남호와 이정언(법흥 살던 사람)이 생질 이 아무가 쓴 乞米帖을 가지고 와서 그의 며느리와 안식구의 기별을 전한다. 쌀이 옥보다 귀하다는 탄식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인가? 독을 다 비워 쌀 닷 되와 벼 한 말을 보냈다.”(203~204) ; 6월 10일, “이형국·강남호가 와 보았다.”(257) ; 8월 8일, “그대로 누이 집에 머물렀다. 아이와 손자들은 강남호의 집에서 자고, 남호와 함께 왔다.”(273~274) ; 8월 12일, “만초와 함께 강남호의 집에 가서 잤다.”(274)

『癸丑錄』[1913년 기록] - 3월 6일, “강남호가 그 아들의 병으로 의원을 찾아가는 길에 들렀다.”(370) ; 3월 7일, “이형국·황의영·강남호와 東三이 와 보고, 손진구가 와서 잤다.”(374) ; 4월 27일, “이형국·강남호와 윤국천(평안도에 살던 사람)·김천용이 지나다 들렀다.”(390) ; 5월 8일, “저녁에 이상룡과 강신종이 와서 잤다.”(394) ; 5월 10일, “이상룡·강신종과 함께 이만영의 집에 그대로 머무르며, 시를 짓고 내기바둑을 두었다.”(394) ; 5월 16일, “강신종의 집에 가서 그대로 잤다.”(396) ; 5월 17일, “길을 나서 누이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사위 강남호가 또 나를 위해 지팡이를 잡고 앞에서 인도해 주어 오후에 집에 돌아왔다.”(396) ; 12월 11일, “강남호가 입적하는 일 때문에 그의 장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었다.”(484)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주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자는 나)에서와 같이 만주에 있는 강숙모와 그의 아이들을 그리워한 것이다. 다)의 “의강숙모 귀령마다 ○소손을 싱각흐사 비회 병철흐사”에서 “의강숙모”는 강숙모를, “○소손”은 ‘유실이’를 말한다. 만주에 있었던 강숙모는 그의 친정어머니를 자주 찾아 본 것 같다. 그래서 작자는 강숙모가 귀령부모할 때마다, 조모께서는 딸을 보아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딸과 같이 자란 자기(손녀)가 생각나 “悲喜 병철”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② 진옥갓흔 너에叔姪 토목갓흔 父母싱각 / 훌적훌적 하난모양 심복에 버려스니 / 三千里 만슈청산 고상고상 차자오니 / 너에叔姪 바려두고 진몽인가 가몽인가 / 이일이 윈일인고 万山深處 차자와셔(<조손별서>)

위는 <조손별서>의 작가가 “너에叔姪”을 이별하고 만주에 도착했을 때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강숙모는 만주에 와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작자가 고향을 떠나올 때 “너에叔姪”을 버려두고 온 심정을 나타냈으므로 이상하다. 그런데 이것은 강숙모의 만주 출발이 <조손별서>의 작가보다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락의 망명일기에 강남호라는 이름이 1911년 7월 1일자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강숙모 가족이 작자보다 늦게 만주에 들어왔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조손별서>의 작자가 망명할 당시에는 “너에叔姪”과 이별을 하고 떠나온 것이다.

2) 아자비

<조손별서>에는 ‘너아자비’가 거론되곤 한다. ‘네아비’와 음이 서로 유사한 데다 두 사람이 만주와 안동을 오고간 사연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네아비’는 두 말 할 것 없

이 李濬衡(1875-1942)²³⁾이다. 간단히 살펴본다.

⑦ 네아비 歸國하여 몇달을 게우잇셔 / 불일이 분주흐니 --- 권권흐신 여러분너 비잡고 건너와셔 / 연연한 마음으로 손잡고 셋슬썩에 / 장부에 간장에도 참아작별 어려워라 / 그날에 미진하미 지금까지 밀아드니 / 감사하기 그지업다 이역에 못친몸이 / 신편언기 어려워라 중심에만 싸여두고 / 보낼도리 업셔스니 무심한 이바람을 / 여러분게 엇쥬리라(<조손별서>)

⑦ 가) 직작동 우리엄친 괴국향산 하엿구나 / 황홀하고 신기하다 하날인가 쌓이온가 / 그사이 이친지정 한말삼도 엇잡지못 / 톱산갓흔 자이뵈고 하히딤은 익정바다 / 사오삭 기한중에 날가는줄 모라더니 / 식로운 이별이야 아심이 최절일식 / 나) 夏六月 念六日은 父女相別 되앗셔라(<답사친가>)

위는 <조손별서>와 <답사친가>의 서술단락 ⑦의 구절이다. 밑줄 친 “네아비”와 “우리 엄친”은 이준형을 말한다. <조손별서>의 구절은 이준형이 안동에 들른 사연과 관련한다. 이준형은 부친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망명 후 이상룡은 독립운동자금에 필요해 고향집 임청각을 매각하려고 아들을 안동으로 귀향시켰다. 그때 이준형은 屏山書院에서 문중인들과 시주 풍류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문중인들이 “연연한 마음으로 손잡고” 이별을 했다고 했다. 작자는 손녀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대신해서 전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 서술에는 직접 대고 말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 이 당시 문중에서는 유서 깊은 임청각의 매각을 반대하면서 대신 돈

23) 이준형은 부친의 사망 이후에는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가던 중 해방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자결한 비극적인 독립운동가이다. 독립기념관(<http://i815.or.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것만 간단히 소개한다. “이명 : 在燮 · 東阜 · 文極. 경북 안동 사람이다. 1908년 2월 부친인 石洲 이상룡이 조직한 대한협회 안동지회와 협동학교 설립운영의 실무를 맡아 구국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인재양성 교육에 힘썼다. 1911년 1월 5일 부친을 따라 중국 동삼성으로 건너간 후 유하현 고산사에서 경학사의 설립을 도우면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1919년 11월에는 서로군정서의 독판이던 부친의 활동을 보좌하며 활동하였고, 1925년 1월 정의부가 조직됨에 길림성 화전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32년 7월 19일 부친의 반혼제(返魂祭)를 드리기 위하여 귀향한 후 국내에서 구국운동을 전개하다가 1942년 9월 2일 국운을 비관하여 자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500원을 만들어 주었다²⁴⁾고 한다. 직접 말할 수 없는 사연이라 다만 시주풍류 때 벌어진 사연으로 돌려서 표현한 게 아닐까 한다. <답사친가>의 구절은 부친이 안동에 귀향했을 때의 감회를 읊은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준형은 “직작동” 즉 1912년 겨울에 안동으로 귀국했다가 몇 달을 지낸 후 1913년 6월 26일에 귀국했다.

③ 가) 万山深處 차자와서 一年이 되듯마듯 / 千万意外 너아자비 놀납고
반가온중 / 너이을 싱각호여 비희상반 하깃구나 / 청할마암 간절호나 흥망이
달인일을 / 권극키 어려우니 나) 너아비 회귀할적 / 이사을 써보와서 갖치오
라 당부호고 / 은연중 미든거시 난맥심사 갈밧업고(<조손별서>)

가)에 “너아자비”가, 그리고 나)에 “너아비”가 등장한다. ‘아자비(아자미²⁵⁾)’는 ‘아저씨’ 혹은 작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로 ‘유실이’의 작은아버지, 즉 이상룡의 조카가 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가)에서 작가는 만주에 도착한 지 일년 쯤 되던 때[1912년 초]에 천만의외로 “너아자비”가 찾아와 놀랍고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고향에 있는 손녀가 생각나 슬펐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자비가 안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작가는 ‘너아자비’ 편에 손녀를 만주로 “청할마암”이 간절했다. 그러나 만주망명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 그때는 말하기 어려웠다²⁶⁾. 그런데

24) “석주어른께서는 당신의 450년 된 고택인 ‘임청각’을 매각해서 독립사업에 쓰려고 외아들인 나의 시아버님[이준형 : 필자 주]을 한국으로 들여 보냈다. ----문중에서 임청각 매각을 반대했다. 또 일본의 눈치도 봐야 하는 난관도 있었다. 문화재라 그랬던가 봐. 어떻게 해서든 팔아 보려고 중간에 사람도 놓아 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문중에서 할 수 없이 돈 500원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지금도 매각 대신 돈해 주었다고 임청각을 내 집이 아니고 문중 집이라고 생각하는 집안사람들도 더러 있다.”(『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앞의 책, 109쪽)

25) 다른 이본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표기는 “너이아어, 너아비”(역대본), “네아자미, 네아비”(가사문학관본1), “네아즈미, 네아비”(가사문학관본2) 등으로 되어 있다. 본래 ‘아자비’는 ‘아저씨’를 ‘아지미’는 ‘아주머니’를 가리킨다. 하지만 필사본의 특성 상 ‘비’자를 ‘미’자로 읽고, 이 오류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혹시 ‘아자비’가 만주에 방문할 때 ‘아자미’가 동반했을 수도 있으나, 당시 일시적인 만주 방문에 아내를 동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6) “청할마암 간절호나 흥망이 달인일을 / 권극키 어려우니”는 앞뒤의 문맥으로 볼

얼마 가지 않아 1912년 겨울에 나)에서와 같이 “너아비”가 안동을 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 작자는 아들에게 만주로 돌아올 때 손녀가 만주로 같이 갈 의사가 없는지 떠보라고 당부했다. 작자는 그 부탁을 해놓고 혹시나 손녀가 같이 오지나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결국 손녀가 오지 않아 서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너아자비”는 이상룡의 조카 중 한 사람이며, 고향 식구를 생각나게 하는 중요 인물이고, 1912년 초 즈음에 만주에 처음 방문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너아자비”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다음에 인용한 서술단락 ④의 구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④ 가) 철업신 어린것들 / 보고접다 노리하야 심회을 도아너고 / 나) 절운한 네아자비 왕너마다 회포로다(<조손별서>)

서술단락 ④는 손녀를 보고 싶어하는 만주 식구들의 모습을 차례로 서술한 것이다. 먼저 가)에서 말한 ‘철업신 어린 것들’은 ‘유실이’의 어린 동생들인 李炳華(1906-1952)²⁷⁾와 그 밑의 동생들을 말한다. 증언에 의하면 이병화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으나 만주 생활 초기에 횃배와 홍역으로 잃었다²⁸⁾고 한다. 이 동생들이 누나가 보고 싶어 보챤 때마다

때 앞과 뒤 모두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7) 역시 독립운동가이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것만 간단히 소개한다. “이명:대용(大用), 주오(柱五). 경북 안동 사람이다. 1911년 조부인 이상룡을 따라 부친 이준형과 함께 중국 동삼성으로 망명하였다. 1921년 무장투쟁 단체인 통의부가 조직되자 그는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동년 의주군 청성진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순사를 살해한 뒤 귀영하였다. 1927년 5월 길림성 반석현에 기반을 둔 한족노동당에 가입하여 사무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8년에는 재중국한국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34년 5월 청성진 경찰주재소의 습격과 관련하여 신의주경찰서에 피체되어 1934년 6월 25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28) “처음 서간도에 도착해서 회인현에 살 때 남편[이병화 : 필자 주]의 동생을 들이나 잃어버린 이야기도 들었다. --- 여동생이 여섯 살 때였다. 늘 횃배를 앓았다. 그 날도 갑자기 회통이 시작되어 통증이 심해 할머니가 업어서 배를 꼭 눌러주면

작자는 손녀가 보고 싶었는데, 거기다가 나)에서와 같이 “절운한 네아자비”가 고국에서 찾아올 때마다 손녀에 대한 회포가 더욱 일어난다고 했다. 그런데 “절운한”이라는 수식구는 주목을 요하는데, 다른 이본에는 ‘천연한’²⁹⁾으로 기재되어 있다. ‘천연’의 한자로는 ‘天然[자연 그대로], 天緣[하늘이 맺은 인연], 颯然[낄낄 웃는 모양], 遷延[물리감, 망설임, 오래 끌, 연이음]’ 등이 있으나, 이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맞는 한자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일단 ‘아자비’는 이상룡의 조카 가운데 고향에 있으면서 자주 만주에 오고간 인물로 “절운한” 혹은 “천연한”이라는 수식구가 붙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상룡의 조카인 이형국, 이운형, 이제형, 이광민, 이광국 가운데 여기에 합당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너아자비”는 李衡國(1886~1931)³⁰⁾으로 확인되었다.

좀 팬찮을 거라고 업었다. 그런데 업혀서도 덩구는 바람에 애가 땅에 딱 떨어졌다. 다시 안아 보니 벌써 명이 떨어졌다. 떨어진 아이 배를 만져 보니 회가 아른아른하게 걸으로 내비치더란다. 또 그 동생은 남자아이인데 그 2년 뒤에 홍역을 했다. --- 어렵사리 구한 약을 써 보지도 못하고, 애는 그날 밤에 죽어 버렸다. 그래서 삼남매이던 것이 줄지에 외아들만 남았지.”(『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앞의 책, 111~112쪽)

29) “천연한”(역대본) “천연한 네아자비”(가사문학관본1) “천연한 네아자비(가사문학관본2)”

30) 이형국도 역시 독립운동가로 추서된 인물이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 이형국(李衡國). 출신지 : 경북 영덕. 훈격 : 애족장(1990). 운동계열 : 만주 · 노령방면. 1886. 12. 12~1931. 3. 27. 號 : 滄海. 경북 안동(安東)사람으로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의 조카이다. 1911년 백부(伯父) 이상룡을 따라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였다. 1913년 만주에 흥년이 들어 경학사(耕學社) 및 광업사(廣業社)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흥학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에 파견되었다. 경기 · 충청 · 경상도지방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신흥사(新興社)라는 비밀단체를 조직,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어 1915년 9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7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후 다시 만주로 건너가 부민단(扶民團) · 한족회(韓族會)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이상룡과 행동을 함께 하였다고 하나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음.”

그런데 이 기록은 정확하지 못한 것 같다. 출신지도 경북 영덕으로 틀리게 기재되어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위의 기록대로 이상룡이 망명할 때 이형국이 함께

㉠ 從子 衡國은 근실하여 至性이 있기에, 지난번 내가 나라를 떠나서 서쪽으로 오면서 누대 선영의 香火와 家藏의 서적을 그에게 부탁했었다. 형국은 貧窮이 심하여 거의 조식을 잊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매번 霜露가 내리는 계절이면 성묘를 정성껏 하였다.³¹⁾

㉡ 절기로 상로가 되었는데 여러 선영들을 누가 돌보고 있느냐? 생각하니 가슴만 아프구나. 너가 지금은 향리에 머무르고 있으니 이번 가을은 아마도 제사를 폐하지 않았을 것이나, 그러나 네 아버지가 꾸짖지 않더냐? 내 말 좀 네 아버지한테 전해다오. 기독교를 믿는 것은 자유지만 선조를 굶기고 천당에 들어간다면 양심에 어찌 송구스럽지 않겠느냐고.³²⁾

㉢ 석주어른께서는 망명 떠나 올 때 종손 대행을 예수 믿는 이 동생[이상동 : 필자 주]에게 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생의 장자, 즉 장조카 이형국에게 종손을 대행하게 했다. 그 양반은 그 책임 때문에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도 자기는 철저한 유교인으로 한평생 살았다. 그리고 신간회의 간부 일도 하면서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하였다. 그의 아들도 예수교회 장로였었는데 그 자신만은 가문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³³⁾

㉠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듯이 조카 이형국은 이상룡이 망명할 때 집안의 중요사인 제사와 서적 일을 맡기고 떠났던 인물이다. ㉡은 이상룡이 이형국에게 쓴 편지글이다. 이상룡은 조카가 지금은 고향집에 있으니 제사를 지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에서처럼 이상룡은 조카가 기독교를 믿는 그 아버지 때문에 고초를 겪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조카에게 그의 부친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제사만은 지내달라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네 아버지”는 이상룡의 동생 李相東³⁴⁾을 말한다. 이상동은 유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갔다면 이상룡이 이형국을 종손 대행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31) 이상룡, 『국역 석주유고 상』, 앞의 책, 567쪽.

32) 이상룡, 『국역 석주유고 하』, 앞의 책, 448쪽.

33)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앞의 책, 157~158쪽.

34) 역시 독립운동가이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것만 간단히 소개한다. “이름 : 이상동(李相東(李健初)). 출신지 : 경북 안동. 훈격 : 애족장(1990). 운동계열 : 3·1운동. 1865~미상. 이명 : 健初. 경상북도 안동(安東)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의 안동읍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평소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여 오던 차에, 때마침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동포의 열기를 촉구하는 격렬한 격문을 작성하고 또 종이로

찍부터 기독교를 믿어, 실질적으로는 가문을 등진 인물이다. 이형국, 이상동, 그리고 이상룡의 관계는 ㉔에 보다 잘 정리되어 있다. 이상룡은 망명할 때 기독교를 믿는 동생한테 제사를 맡길 수가 없어서, 그의 장자인 이형국에게 종손을 대행하게 했다. 이형국은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자신만은 유교를 신봉하고 가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이형국은 이상룡이 종손 대행으로 삼을 만큼 신뢰한 인물로 이상룡의 수족처럼 안동과 만주를 오가며 문중의 일을 도맡아 했음을 알 수 있다. “너아자비” 이형국은 1912년 초 썸 처음으로 만주를 방문한 이래 자주 안동과 만주를 오가며 이상룡의 일을 보좌했기 때문에 <조손별서>에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자기 부친과 인륜을 끊었기 때문에 “절윤[絶倫]한”이라는 수식구가 붙여진 것이다.

⑧ 어엽불사 이아히야 무도한 너할미난 / 일분자정 걸여있서 억울한 이소
회을 / 여산여히 하다만은 네자비 즐정혀여 / 훌훌리 썸나오니 황황한 이마
암이 / 불성인사 되엿구나 두어줄 초을잡아 / 너에게 붓치나니 귀귀이 남스
럽다(<조손별서>)

위는 <조손별서> 서술단락 ⑧의 구절이다. 할 말은 많지만 “네자비”가 안동으로 떠날 날을 급히 잡는 바람에 인사불성으로 두어 자 초를 잡아 가사를 지어 보낸다고 했다. 여기서 “네자비”는 “네아자비”의 탈기가 아닐까 생각된다³⁵⁾. 이형국이 만주로 들어와 있다가 갑자기 안동으로 들어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대형 태극연을 제작하였다. 3월 13일 오후 5시 30분경, 격문과 태극연을 가지고 장터에 나온 그는 공신상회(共信商會) 앞에서 태극연을 날리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장꾼들이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외쳤으나, 긴급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해 4월 12일 대구(大邱)복신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음.”

35) 다른 세 이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 참조할 것이 없다. 그런데 “네자비”의 행위를 “쩌나가니”가 아니라 “쩌나오니”라 한 점은 이상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문맥상 ‘만주를 떠나가니’가 되어야 맞다. “네자비”에서 “자”字가 너무나 분명하게 필사되어 있기 때문에 ‘아’자의 탈기로 봄이 합당할 듯하다.

가게 되자, 작자가 손녀에게 보낼 편지를 대신하여 급히 가사를 지어 보낸 것을 서술한 것이다.

3) 여타 인물

두 가사에는 식구들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타난다. 하나하나 차례로 살펴본다.

② 고상한 너에祖父 甲午年후 十餘年을 / 혼탁세계 보기슬어 은벽쳐사 되
엿서라 / 세사가 창망흐나 너에조부 구든마암 / 더욱이나 장렬흐니 나는본디
무식흐여 (<조손별서>)

③ 우리왕부 학형도덕 겸전하사 / 위국편심 업살손야 己酉年 冬十月에 /
낙미지익 당흐시고 무옥고초 되어구나 / 티장부에 충분으로 감기지심 참선
난가(<답사친가>)

먼저 <조손별서> 서술단락 ②에서 “너에祖父”는 이상룡이다. 이상룡은 갑오년(1894년)에 조부가 사망해 삼년복을 입게 된 데가 동학전쟁과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도곡으로 우거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다. 게다가 1902년부터는 모친이 아파 7년간이나 병수발을 들어야 했다. 밑줄 친 부분은 이상룡이 갑오년 이후 10여 년을 앞에 나서서 일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³⁶⁾. 다음 <답사친가> 서술단락 ③에서 “우리왕부”도 이상룡을 말한다. 밑줄 친 부분은 이상룡이 기유년(1909년)에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말한다. 1909년 2월에 안동경찰서는 匪徒와 연결되었다는 명목으

36) “갑오년에 忘湖府君(석주의 조부)이 세상을 떠나자 ----. 이해(1894)에 동학이 매우 熾盛하고 이어서 청일전쟁이 있었다. 부군은 난리가 바야흐로 시작됨을 미리 예측하고, 살고 있는 곳이 府와 가까워서 번거롭고 소요스럽다 하여 几筵을 모시고 도곡의 선재로 옮겨 우거하여 날마다 농사를 짓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과로 삼았다. --- 임인년(1902)에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 부군은 7년 동안 약을 달이고 밤에는 옷을 벗고 자지 않았다. 상을 당하게 되자, 몹시 슬퍼하여 본성을 잃을 지경에 이를 뻔하였다.”(<先府君遺事>, 이상룡, 『국역 석주유고 하』, 앞의 책, 597~598쪽)

로 이상룡을 잡아들였다. 경찰의 고문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던 차에 시민의 석방 시위까지 일어나자 이상룡은 3월에 풀려났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건이 ‘冬十月’에 있었다고 적고 했는데, <先府君遺事>에 의하면 2월에 있었던 사건³⁷⁾으로 기록되어 있다. 창작 혹은 향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⑤ 장중에 일기금동 금상첨화 되었스니(<조손별서>)
- ⑥ 남천보옥 우리정하 일최월장 자라나셔(<조손별서>)

밑줄 친 “장중에 일기금동”과 “남천보옥 우리정하”는 같은 사람으로 ‘유실이’의 맏아들인 柳正夏(1912년생)³⁸⁾를 말한다. 작자가 이 가사를 지을 당시 손녀에게는 아들 하나만이 있어, ⑤에서 “일기금동”이라 한 것이며, ⑥의 ‘우리정하’에서 ‘정하’는 외손자의 이름이다.

⑨ 다) 금년갑인 춘이월은 우리왕모 갑일일식 / 즐겨온중 이달하다 종쥬 달야 전전불미 / 엇지하야 불참인고 소산디랄 농사호여 / 셔숙갈고 감자심어 남산갓치 썩을호○ / 한강슈로 술을비○ 삼각산을 ○어○○ / 라) 우리야야 남미분○ 두쌍으로 현작할적 / 노리자에 아롱오시 춘풍에 나붓기여 / 남산에 슈을빌고 셔강에 복을빌어 / 만당열좌 제아드런 초기발월 춤추난가 마) 여룡 여호 나에남제 손꼽아 나올헤니 / 방연이 구세로다(<답사친가>)

위의 다)에서 “우리왕모”는 작자의 조모 즉, 김우락을 말한다. 1914년 2월에 조모의 환갑날이 있었지만 작자는 그 잔치에 갈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안타까움을 표한 뒤 수연잔치의 모습을 상상해 축하한 것이다. 라)의

37) “己酉年(1909) 2월 본군(안동) 경찰서에 구인되었는데, 경찰서에서는 匪徒와 연결하였다 하여 누차 고문을 시행하였다. 부군은 답변이 조용하고 착오가 없으니, 경관이 단서를 잡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시민이 물결처럼 동요하고, 경찰서 문 앞에서 부르짖어 곡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르렀다. 경찰서에 구류된 지 한달 남짓 지나서 석방되었다.”(<先府君遺事>『국역 석주유고 하』, 앞의 책, 599쪽)

38) “子正夏 一九一二壬子生 室眞城李氏父源國己未生三子”(『풍산류씨세보』卷之三, 234~235쪽)

“우리야야 남미분”은 ‘우리 아버지 남매분’으로 서로 남매 사이인 이준형과 강숙모를 말한다. 작자는 이들이 환갑을 맞이한 조모에게 술잔을 올리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마)의 “나에남제”는 ‘나의 남동생’ 즉 李炳華로 작자가 이 가사를 창작할 당시 겨우 9세였다. 작자는 장녀로서 집안의 장손인 남동생에게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덕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기타

② 가) 七十餘間 傳來祭宅 / 동누하량³⁹⁾ 쪄은각쳐 헌신갓치 바려두고 / 통곡으로 썬날시에 나) 고기너머 만든유술 / 一時에 登達흐니 골난이 이슬기다 / 左右로 말이거날 北便에 정한길노 / 월옥도망 흐듯흐니 너을다시 못본 거시 / 철천지한 될듯흐다 다) 九潭酒店 다다르니 / 난봉갓흔 우리손서 몽중 갓치 만나보고 (<조손별서>)

우선 가)의 “七十餘間 傳來祭宅”은 임청각을 말한다. 임청각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안동 고성이씨의 대종택이다. 나)는 작자가 망명할 때 손녀를 보지 못하고 떠나온 서운한 심정을 읊은 것이다. 작가 일행은 남편보다 나중인 1월 20일에 길을 나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을 나서면 일경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⁴⁰⁾ 일행이 흩어져서 가기로 했다. 손녀가 사는 하회마을은 임청각이 있는 안동 법흥동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작자는 북편길을 택했기 때문에 손녀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다)는 손녀를 보지 못했으나 다행히 사위가 구담까지 와서 작자를 전송한 사실을 서술했다. 구

39) 冬溫夏涼 :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는 뜻이다.

40) “18일, 집 회신 전보가 비로소 도착하였다 한다. 20일에 발행하려 하는데, 사방에 감시가 깔려 있어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는 일이니 걱정이 놓이지 않는다.”<西徙錄>(이상룡, 『국역 석주유고 하』, 앞의 책, 20쪽) 이상룡과 작가 일행은 1월 25일에 신의주에서 만나 1월 27일에 압록강을 건넜다.

담은 하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⁴¹⁾이다.

① 遠別한지 얼마런고 얼푸시 六年光陰(<답사친가>)

④ 신흥연 春正月에 난디업는 이별이야 / 싱이사별 딘듯흐다(<답사친가>)

먼저 ①의 “얼푸시 六年光陰”은 작자가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것을 말한다. 이 당시에는 햇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유실이가 결혼한 1909년에서 가사를 창작한 1914년까지는 6년이 된다. ④의 “신흥연 春正月”은 다른 이본에 모두 ‘신희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⁴²⁾, ‘신희년 春正月’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같다⁴³⁾. 이상룡 일가가 만주로 망명한 신희년(1911년) 1월(춘정월)을 말하는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조손별서>와 <답사친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증했다.

이전의 논문에서 ‘유실이’의 사망년대는 1937년으로 추정되었다. 추정은 ‘유실이’에 대한 족보기록과 자식들의 출생연도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41) 이상룡은 1월 6일 고향집을 나서서 1월 7일에 손녀가 사는 하회마을 사돈택에 도착했다. 하루를 유숙하고 그 이튿날 다시 길을 떠났다. “8일 아침 먹은 후 출발하려고 하는데 柳室이 정에 약하여 눈물을 흘린다. 동전 여섯 껌미를 주며 달래었다. 종기씨와 천천히 걸어 재 넘어 九潭에서 잠시 쉬었다.”(이상룡, 『국역 석주유고하』, 앞의 책, 17쪽) 1월 8일 아침에 하회를 떠난 이상룡이 그날 낮에 구담에 도착했으므로 하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42) “신희연(역대본)”, “신희년(규방가사본)”, “신희년(가사문학관본1)”, “신희연(가사문학관본2)”

43)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문학-자료 및 작가를 중심으로」(앞의 논문, 48쪽)에서는 “신희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무리한 해석을 시도했다. 다음의 구절은 시정을 요한다. “<답사친가>의 내용에 “신희연 春正月에 난디업는 이별이야”라는 구절이 나온다. 결혼 후 1년 정도를 친정에서 보내다가 신희연을 떠났고, 얼마 안가 친정 식구들의 만주행이 있었는데, 이때 ‘신희년 춘정월’은 신희연이 있고 난 후 정월달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런데 1932년 남편 유시준이 적은 <읍혈록>에 의하면 ‘유실이’는 그 당시 아들을 낳고 사망한 후였다. 따라서 ‘유실이’의 사망연대는 이상룡이 사망한 1932년 전으로, 셋째아들을 낳은 1927년임을 알 수 있다.

두 가사에는 ‘叔姪’이 종종 언급되곤 했다. <조손별서>의 “너희叔姪”은 작자의 외동딸인 ‘강실이’와 장손녀인 ‘유실이’를 말한다. 강실이는 작자가 늦은 나이에 낳은 늦둥이로서 손녀 유실리와 거의 같은 연배였다. 이 둘은 동시에 성장했으므로 “너에숙질 차등업시 길너너니”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다. 이 두 사람은 결혼을 비슷한 시기에 했으며, 귀령부모를 동시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강실이는 유실리와 달리 남편과 함께 만주에 망명하여 살고 있었다. 한편 <조손별서>에는 “너아자비”가 등장하는데, “아비(이병화)”와는 다른 인물로서 손녀에게 “아자비”가 되는 이상룡의 조카 중 한 사람이다. 이상룡의 조카들을 조사한 결과 “아자비”는 이형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형국은 이상룡이 망명하면서 종손 대행으로 삼은 인물로 안동과 만주를 오가며 문중의 일을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자기 부친과 인륜을 끊었기 때문에 “절윤[絶倫]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질 수 있었다.

그 외 “너에祖父”와 “우리왕부”는 李相龍(1858-1932)을, “장중에 일기 금동”과 “남천보옥 우리정하”는 유실리의 장남 柳正夏(1912년생)를, “우리왕모”는 <조손별서>의 작자 金宇洛(1854-1933)을, “우리야야 남미분”은 유실리의 부친과 숙모인 李濬衡(1875-1942)과 강실리를, “나에남제”는 유실리의 남동생 李炳華(1906-1952)를 말한다. 이들 인물과 관련한 각 구절의 사연을 아울러 고증했으며, 기타 망명과정과 연도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고증했다.

사실 두 가사의 고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상룡이 워낙 유명한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이다. 사학계의 연구 성과는 이상룡의 행적은 물론 가계도까지 잘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사를 고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룡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모두 남성을 위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한 정보

는 따로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렇게 유명한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규방가사를 고증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대다수 이름 없는 집안에서 창작된 규방가사의 내용 고증이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필사본 자료를 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증이 어렵다고 아주 포기하고 말 일은 아니라고 본다. 비록 이름 없는 작가들의 가사에 불과하지만 이들 가사들도 엄연히 우리 고전문학의 훌륭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여성 작가들이 쓴 규방가사에 대한 고증 작업이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고순희, 「만주망명가사 <간운스> 연구」, 『고전문학연구』제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107~134쪽.
- _____, 「일제 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담당층 혁신유립을 중심으로」, 『고시가문학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학회, 2011, 37~68쪽.
- _____,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문학 - 자료 및 작가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제29집, 한국고시가학회, 2012, 33~66쪽.
- _____,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 - 미학적 특질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제44호, 우리어문학회, 2012, 125~152쪽.
- _____, 「만주망명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적 특질」,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5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12, 183~207쪽.
-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100~101쪽.
- _____,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49~50쪽, 569~572쪽.
- _____, 『규방가사 1』, 한국정신문화원, 1979, 189~195쪽.
- 김희곤,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영남사, 2001, 195쪽.
- 단국대유희곡기념도서관 편, 『한국가사자료집성』제 2권, 태학사, 1997, 131~154쪽.
-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412~413쪽.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122·123·186·204·257·274·370·390·395·396·484쪽.
- 이동영, 「개화기 가사의 일고찰」, 『가사문학논고』(중보판), 부산대학교출판부, 1987, 157~160쪽.
- 이상룡, 『국역 석주유고 상』,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2008, 478~479쪽.
- _____, 『국역 석주유고 하』,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17쪽, 597~599쪽, 613쪽.

- 이준형, 『東邱遺稿』, 석주이상룡기념사업회, 1996, 518~519쪽.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제45권, 아세아문화사, 1998, 300~313쪽.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제 23권, 여강출판사, 1992, 74~87쪽.
- 『豊山柳氏世譜』 卷之三, 234~235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 108쪽.
- 허은 구술, 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우사, 1995, 101쪽, 109쪽, 111~112쪽, 210~211쪽.
- 독립기념관(<http://i815.or.kr>) >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독립운동가
- KRPIA(<http://www.krpia.co.kr>) >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 답사친가

투고일 : 2013년 1월 1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Explication of <Joseonbyeolsoe> and <Dapsachinga>

Ko, Soon-Hee

It is very difficult to read the texts in <Joseonbyeolsoe> and <Dapsachinga>, and moreover, in many cases it is impossible to know who characters in passages are and what their stories are. Thus, this study is to explicate every passag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first step was to presume the death day of Yoosiri the author of <Dapsachinga>. At first, it was presumed to 1937 but was found to be 1927. The two lyrics were analyzed as to paragraph, in the interest of discussion on the next chapter.

The second step was to explicate what two lyrics are about on. Their authors were grandmother and granddaughter who were having the same stories. For this reason, their works were analyzed as to subject. In the works, 'an uncle and his nephew' refers to Gangsiri and Yoosiri. In addition, 'uncle', 'your grandfather', 'our grandfather', 'the town's best treasure; the treasure in Namcheon River; our Jeong-Ha', 'our grandmother' and 'my brother' refer to Lee Hyoung-Gook (1886~1931), Lee Sang-Ryong (1858~1932), Yoo Jeong-Ha (born in 1912), Kim Woo-Rak (1854~1933) and Lee Byoung-Hwa (1906~1952) respectively. In this regard, it was possible to concretely reveal respective characters' stories behind lives and diaspora.

Key words : Joseonbyeolsoe, Dapsachinga, Diaspora toward Manchuria, Kim Woo-Rak, Yoosiri, Lee Sang-Ryong, and Yoo Si-Joon